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尹, 순직소방관 일일이 거명…“보호장구 확충·PTSD 치유 적극지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아린이정원 전디마당에서 열린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순직 소방관 자녀들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제61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아린이정원 전디마당에서 열린 기념식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희생한 순직 소방공무원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년 1월 평택 냉동창고 신축 공사 현장의 대형 화재 현장에 뛰어든 고(故) 이형석 소방경, 고 박수동 소방장,

고 조우찬 소방교와 올해 3월 주택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 한 명의 생명을 살리고 자 화염 속으로 뛰어든 고 성공일 소방장을 추모하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순직 소방관 자녀의 손을 잡고 행사장에 입장

했다. 행사에 앞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행사장 맨 앞줄에 마련된 윤 대통령 부부 자리 옆에도 유가족이 앉았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뿐 아니라 소방대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만을 생각해달라”며 “정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전념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 위험이 일상화하고 산업화·도시화

로 과거에 없던 위협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소방 조직이 세계 최고의 재난 현장 대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동식 소화 수조를 확대하고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현장 대응을 위해 소방 로봇 보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확대했고 구조·구급 활동비도 대폭 증액하면서 “이제는 지역 소방지휘관 직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재난 현장에서의 지휘권이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소방대원이 지난해 재난 현장 130여만 곳에 출동해 11만명이 넘는 국민을 구조하고 300만건의 응급환자 구급 조치로 210만명의 생명을 지켰다면서 “용기 있는 소방관을 가진 나라가 안전한 나라이고 소방관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나라가 건강한 나라”라고 말했다.

특히 뒤틀리기에 지친 구호 현장과 캐나다 산불 현장에서 보여준 헌신과 연대의 정신이 대한민국 위상을 드높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엄준욱 인천소방본부 소방감, 안재영 대전 유성구 의용소방대장 등 4명에게 훈·포장 및 대통령 표창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순직 소방 유가족, 전국 시도 소방관, 주한 뒤틀리기에 및 캐나다 대사관 소속 참사관, 남화영 소방청장 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 송진영 기자

인천시, 내년부터 스토킹 피해자에 최장 30일 긴급주거지원

인천시는 스토킹 범죄로 위기에 처한 피해자에게 내년부터 임시주거시설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보유한 시내 임대주택 중 5가구를 임차했다. 스토킹 피해자 임시주거시설은 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용 대상은 수사기관에 사건이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정된 경우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임시주거시설 이용자에게는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과 심신안정·회복 전문치료, 법률서비스 연계 등도 지원된다.

시는 1인 여성가구와 점포에 안심홈세트·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는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역을 올해 부평구·남동구에서 내년



예 종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권정석 기자

오세훈 ‘빈대 제로 서울’ 선언…전문가 간담회 개최



빈대 제로 숙박시설에 ‘소비자 안심마크’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빈대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빈대 제로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보건의료·감염병 관련 전문가와 시의 빈대 방역 협력과 대책을 논의했다.

시는 빈대 신고·관리체계를 구축해 빈대 발생 신고부터 방제까지 지원하고 호텔·숙박시설 등 민간협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전날에는 6개 반 32명으로 구성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대책본부’를 꾸려 매일 회의하고 빈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보건소, 120다산콜센터와 함

께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서울시 빈대 예방·관리 5대 실천사항을 준수한 숙박시설에는 명예감시원을 통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빈대 예방 실천 시설’ 스티커를 부여한다.

또 소비자 안심마크를 신설하고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숙소는 예약플랫폼에 이를 표시해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유튜브를 통해 빈대 예방·관리 동영상을 제공하고 기본안내서·카드뉴스·자율점검표를 개발해 배포하는 동시에 오는 10일에는 방역업체 대상 교육도 할 예정이다.

지하철은 직물 소재 의자 전동차 청소 강화, 오염물질 제거와 실충 소독제 살포, 전문 방역업체를 통한 모니터링, 직물 소재 의자 전동차 교체 등으로 시민의 우려를 불식한다.

시는 간담회에 앞서 쪽방촌·관광호텔·9호선 김포차량기지 등을 찾아 위생점검과 방역작업을 시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는 “빈대 발생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대응이 필요하다”며 “시의 빈대 정책에 시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조창민 기자

도전과 신용으로 창조한 중동신화 현대자동차그룹이 다시 씁니다

오일쇼크로 어려움에 처했던 1970년대, ‘현대’는 불굴의 도전 DNA와 신용으로 중동 붐을 일으켜 국가 경제의 버팀목이 됐습니다.

초대형 신도시 네움시티 등 새롭게 열리는 ‘중동 2.0 시대’, 현대자동차그룹은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도전 헌터티지와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첨단 플랜트 등 신산업으로 다시 한번 ‘중동신화’를 재현하며 경제발전을 위해 대한민국과 함께 하겠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한국문화 흡뻑 빠진 찰스3세, 국빈방문 전 K팝·韓요리 배우다”

BBC·텔레그래프·인디펜던트 등 주요 매체 보도…“정말 즐기는 듯”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런던 근교에 있는 뉴몰든 한인타운을 처음 방문한 것을 두고 BBC와 텔레그래프지 등 영국 주요 언론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했다. 인디펜던트지는 ‘찰스 3세가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K팝과 한국 요리에 대해 배운다’라는 제목으로 유럽 최대 한인타운인 뉴몰든 방문을 상세히 다뤘다.

이날 찰스 3세 방문 때 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스피커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다. 현장에 있었던 무용가 이성효씨는 “국왕이 ‘K팝이 인기인 요인이 뭐냐’고 물어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75세 생일(11월 14일)을 앞두고 김치와 김치 요리책, 얼그레이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다. 행사장에는 미역국, 구절판 등이 있는 한식 생일상이 차려졌다. BBC는 ‘찰스 3세 국왕이 서울 음식을 교외에서 찾는다’라는 제목 기사에서 찰스 3세의 뉴몰든 방문이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문 전에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



한식 생일상 설명 들는 영국 찰스 3세 국왕

했다. 찰스 3세가 뉴몰든 한인타운 방문을 정말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고 이 방송은 보도했다. BBC는 행사장인 뉴몰든 감리교회 앞 한국 슈퍼에 김치가 가득 있고, 길거리 창문에 붙은 광고는 한국 스포츠 팀, K팝 대회, 한인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뉴몰든에 한인타운이 형성된 배경에

관해선 사람마다 다른 답이 나온다고 BBC는 전했다.

과거에 대사관저와 삼성이 있었기 때 문이라면 전연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교육과 한국 음식을 이유로 든다는 것이다.

최근 한국 문화는 놀라운 수출 스토리였고, 찰스 3세도 이곳에서 청년들과 한국음악에 관해 이야기할 정도라고 BBC

는 한류에 대한 영국 및 국왕의 관심을 짚었다. 한국 문화 인기 비결에 관해 윤여철 주영한국 대사는 “나만의 특이한 해석이 있는데 한국인들은 아주 감정적이고 열정적으로 될 수 있다”며 “그런 강렬함이 창의성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BBC가 전했다.

윤 대사는 “한국 음식같이 한 번 맛을 보면 중독된다”고 덧붙였다.

BBC는 공연을 위한 그러한 재능은 위로 올라간다면 윤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일을 환기, 감동적이고 놀라웠다고 평가했다.

텔레그래프지도 찰스 3세 국왕이 윤 대통령 국빈 방문에 앞서서 뉴몰든에서 한국 문화와 음식을 배웠다고 보도했다.

텔레그래프지는 찰스 3세가 “대통령이 오기 전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다고 전했다.

/ 송원기 기자



김건희 여사, 라우라 여사와 환담

김건희 여사, 이탈리아 영애와 환담 “K패션 관심 가져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한국을 국빈 방문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의 딸인 라우라 마타렐라 영애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환담했다.

김 여사는 “한국과 이탈리아는 문화적·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양국 국민들이 더 많이 교류해 깊은 우정을 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가 지난 5월 경복궁에서 개최한 패션쇼를 언급하며 “한국과 이탈리아, 전통문화와 현대 문화 간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한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실력을 갖춘 한국의 젊은 디자이너, K-패션의 더욱 활발히 세계 무대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있다. 관

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여사는 라우라 영애가 9일 합천 해인사를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기대감을 보이자 “불교와 유교 문화가 어우러진 한국만의 독특한 미술 양식이 있다”며 “필만대장경이라는 한국의 우수한 세계 유산을 꼭 둘러보기를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탈리아 피자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김 여사는 이탈리아 피자만의 특징과 매력을 묻자 라우라 영애는 “이탈리아 피자는 좋은 반죽을 베이스로 모짜렐라 치즈와 토마토 등을 가볍게 토핑하는 건강한 피자, 진짜 피자”라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한국에서 정통으로 인정받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피자가 그렇다”고 화답했다.

/ 권도영 기자

카카오 흥은택 대표 “SM 인수 과정 심려 끼쳐…조직 재정비”

사업 리스크 최소화 강조…카톡 오픈채팅 결합한 ‘AI 콘텐츠봇’ 출시 예정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카카오[035720]의 흥은택 대표가 주주들에게 사과하고, 조직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흥 대표는 9일 카카오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 모두 밝은에서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부정적인 뉴스로 카카오 주주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의혹에 대해 사법기관에 충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의 성장과 함께 그만큼 커진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회사 경영의 틀을 다시 고민해 조직 재정비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주들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흥 대표는 카카오의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사업 전략에 대해 이를 시일 내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에 결합한 ‘AI 콘텐츠봇’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가령 모두가 동일한 소식을 받는 ‘프로 야구봇’이나 ‘프리미어리그봇’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응원하는 구단이나 선수처럼 더욱 작은 단위로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세분화, AI봇이 큐레이션 하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공통의 관심사 커뮤니티를 형성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흥 대표는 이를 ‘マイ크로 버티컬 AI’로 정의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지, 추가적인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지 검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흥 대표는 “AI 모델 측면에서 카카오 브레이인 자체 개발 중인 다양한 파라

미터(매개 변수) 크기의 파운데이션 모델 중 일부 모델은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이와 동시에 글로벌에서 공개돼있는 오픈소스 모델의 파인튜닝(미세 조정)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서비스에 실제 적용하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 두고, 구현하려는 서비스에 적합한 모델을 비용 효율성의 관점에서 유연하게 선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흥 대표는 카카오의 AI 사업과 관련해 “오픈소스를 활용해 만든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용할 경우와 파인튜닝을 할 경우에 비용이 1원 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데이터를) 서빙(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용 합리적·실용적인 저희(카카오)의 접근법이 적중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자신감을 보였다.

/ 신지해 기자

이 밖에 흥 대표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AI 클라우드 시장에서 인지도를 빼르게 쌓아가고 있다며 회사가 인력 조정과 사업 이관을 포함해 클라우드 중심의 사업 구조로 재편하는 작업을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흥 대표의 미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밸인은 카카오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진 가운데 연내 차세대 초거대 AI 모델인 ‘코 GPT 2.0’ 공개·발표가 불투명하다는 업계 안팎의 전망을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차관, 마트 찾아 수산물 물가 점검

해양수산부는 박성훈 차관이 9일 오후 홈플러스 영등포점을 방문해 수산물 물가와 명태 등 정부 비축 물량 공급 상황을 살피고 수산물 할인행사 상황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고 있으 며 해수부는 물가안정책임관인 박 차관을 필두로 현장점검과 일일점검 2개 반으로 ‘물가안정대응반’을 구성했다.

박 차관은 현장에서 소비자가 체감 할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그는 지난 2일에도 마트를 방문해 정부비축 천일염 방출 현황과 수산물 물가와 명태 등 정부 비축 물량 공급 상황을 살피고 수산물 할인행사 상황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수산물 전용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할인 발행, 고등어 1만t 할당관세(관세 10→0%) 등 수산물 물가안정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오정희 기자

aT 가 함께 합니다

지속 가능한 우리 농어업!
잘사는 우리 농어업인!



오세훈 “메가시티, 선거전략 아냐…총선 후에도 논의할 것”

국민의힘 강원도당 찾아 의지 표출…“강원·서울 일심동체 협력”

경기 김포 등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도시들을 모두 아우르는 ‘메가시티’에 관해 야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8일 오후 강원 춘천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 열린 주요 당직자 간 담회에서 “행정구역 개편에 관해 선거 전에 (이슈가) 되다 보니 선거 전략으로 펼쳐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나 총선 후까지 논의하자고 얘기했다”며 “선거 후에 폐기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오지만 (논의를) 꼭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와의 실질적인 협력 구축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강원과 서울은 말로만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심동체의 경지에 이를 것”이라며 “올겨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진태 강원지사 등이 8일 강원도청에서 은퇴지들의 인생 2막을 지원하기 위해 삼척에 ‘골드시티’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청소년동계올림픽부터 시작해 문화·관광

한다”며 “이 정권을 좌지우지하는 이는 다 강원도에 있어서 특별히 아부하려 월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실세는 전부 다 강원도에 있어서 서울과 강원은 잘 지내야

찾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오 시장은 강원도청을

찾아 ‘상생발전을 위한 우호 교류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약을 하고 초고령 사회 및 지역소멸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6개 분야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고향사랑기부제 및 관광교류 활성화, 농수특산물 직거래 및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국제 행사 개최 상호 지원, 바이오·의료산업 혁신 클러스터 간 연계 협력 강화, 도시 디자인정책 교류 활성화에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강원도와 서울시는 또 양 자체 간 1호 실천사업인 ‘골드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도 했다.

골드시티 사업은 소멸 위기의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여가 활동이 가능한 지방 도시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5060세대의 인생 2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최형우 기자



대중교통 내 빈대 확산 막는다 국토부, 시설별 방역대책 마련

철도·항공·버스 등 소독 지침 강화

했으며, 입국장과 환승라운지 등 주요 구역 내 예방소독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내 빈대가 확산하지 않도록 버스·철도·항공 등 시설별 방역·방제 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된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 대응 회의’의 후속조치로,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11월 13일~12월 8일) 동안 시행된다.

우선 철도 역사는 그간 주 1회 실시 하던 역사 청소에 더해 지난 6일부터 주 2회 방제 소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고속열차 내 의자, 선반, 테이블 등에 진공·고온 스팀청소를 실시하고 질병관리청이 지정한 약품을 활용해 방제 소독을 매일 시행하고 있다.

공항의 경우 해충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

/ 장호성 기자

독립유공자단체, ‘홍범도 흉상·독립영웅실 철거 반대’ 결의

독립유공자 선양 단체들은 8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 배지화를 촉구했다.

광복회와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등 24개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결성한 ‘독립운동단체연합’은 이날 이런 내용의 공동결의문을 제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펼쾡, 왜곡하는 어떤 세력·시도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육사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영웅실 철거를 시도 중인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시도를 규탄하며 전면 배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이념 몫으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일체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육사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6명의 독립영웅 흉상 중 홍범도 장군 흉상은 외부로 이전하고 다른 흉상은 교내 다른 장

소로 옮길 예정이다.

또 지난달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독립영웅을 기린 충무관 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착수했다. 이곳은 임진왜란, 6·25 전쟁, 베트남 파병 등을 다루는 ‘국난극복 사 학습실’로 바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도 “육사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거듭 밝혔다. 신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하자 “홍범도 장군의 후반부 경력이 육사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육사에서도 그렇게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독립영웅실 철거작업이 독립영웅을 육사 내에서 지우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라는 진 의원의 지적에는 “삼국시대부터 각 시대별로 (기릴 인물을) 정리하고 있다”며 “위나 많은 분이 있어서 실을 만들어서 역사적인 곳으로, (모두를) 충분히 선양한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 양승준 기자

새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사법신뢰 회복 적임자”

김대기 “국민의 재판권리 보장 협신·원칙론자로 정평”…동의안 통과도 낙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사법연수원 13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보호에도 앞장서 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 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



조희대 전 대법관

없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발표가 예상보다 일찍 이뤄진 데 대해서는 “대법원장 공백 기간이 오래될수록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본다”며 “국회 본회의도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12월 초까지 있고 하니 좀 서둘러서 했다”고 답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내달 9일 전까지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이분을 보면, 또 세평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대법관을 하고 나서도 고소득이 가능한 변호사를 안 하고 대학원에서 후학 양성을 했다. 또 인품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봐서 충분히 통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후보자 지명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지 33일 만에 이뤄졌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 송원기 기자

한동훈, ‘관종’ 비난에 “불법탄핵 남발 野가 뜨거운 관심 끌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9일 자신을 ‘관종’이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법 탄핵 남발해서 국정 마비시키려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계신다”고 반박했다.

‘관종은 ‘관심종자’의 줄임말로 지나치게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속어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착각하시는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탄핵안

발의와 관련해 ‘할 테면 하라’고 밝힌 한 장관에 대해 “소위 관종이라고 한다”며 “모든 세상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착각에 단단히 빠져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비난했다.

한 장관은 “나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 말은 억지로 관심 끌고 싶어 하는 사람을 모욕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은 이 말을 공개적으로 특정인을 상대로 하지 않으신다. 왜냐면 그렇게 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런데 매번 국민을 대표하신다는 분들이 국민들과는 달리 이런 말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당황스럽긴 하다”고 지적했다.

/ 최진숙 기자

**Galaxy Watch6
Classic Golf Edition**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 상기 이미지는 이해를 위해 연출된 화면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생부터 기초수급자까지’ 마약사범 무더기 검거

단속 피하려 여장하기도…남해해경청, 올해 마약사범 27명 검거

대학생부터 조직폭력배, 기초생활수급자까지 올해 마약사범 27명이 해경에 검거됐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마약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마약사범 2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해경은 2021년 11월 부산 중구 부둣가 앞 해상에서 낚시줄 바늘에 걸려 올라온 마약주사기 사건과 관련해 마약사범 21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당시 발견된 마약 주사기에서 검출된 DNA를 추적해 무직인 50대 투약사범과 50대 조직폭력배를 검거하고 공급처를 추적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판매책인 50대 폭력조직 부두목과 조직원, 50대 대리운전 기사를 검거했고 이들의 유통 혐의인 40대 조직폭력배도 붙잡았다. 판매책에게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이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다.

이들의 직업은 요식업 종사자, 유통업



마약 단속 피하고자 여장한 남성 요식업자

소 종사자, 대학생, 회사원,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통신사 상담원, 건설노동자, 병원 상담원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가운데는 기초수급자도 있었다. 남성 요식업자는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장을 하기도 했다.

올해 3월에는 동남아시아산 마약류를 밀반입해 선원 등 해상 종사자들에게 유통한 혐의로 판매책 40대 택시기사와 50대 자영업자 등 3명과 알선책인 40대 선원 등 5명이 붙잡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선원과 해양 관

련 종사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

해경은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어장관리선 선장과 선원 가족 등 12명을 검거했다. 해경은 마약을 공급한 유통총책을 추적하는 등 주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로써 해경이 올해 검거한 마약사범들로부터 압수한 마약은 모두 필로폰 52g과 대마 358g 가량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적발한 마약 대부분 태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 항공편을 이용해 국제 우편물로 국내 들여온 것”이라며 “유통 조직원들은 소셜미디어(SNS)를 이용해 정보를 주고 받았고 판매책과는 주로 대면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남녀노소, 전 연령층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미약 유통이 확산하는 가운데 앞으로도 마약범 조직의 전모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 이호준 기자

‘횡령·배임’ 백현동 민간업자, 보석석방…관련자 접촉 금지조건



백현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정모 회장

또 참고인·증인 등 사건 관련자들과의 통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연락을 금지하고, 주거지를 자택과 암 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제한했다. 해외 출국시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회사든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정모(67)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정 회장 측은 지난 3일 열린 심문에서 “과거에 전립선암 수술을 했는데 현재 각종 수치가 좋지 않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올해 3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엔디PFV와 자신이 실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 회사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 도원중 기자

‘신림역서 20명 살해’ 예고글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8일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범죄 예고 글에 대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는 조선(33·구속기소)이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한 지 3일 후였다.

/ 김현욱 기자

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직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 글 1천700건을 올린 행위에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7월 24일 신림역 인근을 지나는 여성을 살해할 목적으로 길이 32.5cm의 흉기를 구매하고 인터넷 게시판에 “수요일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는 조선(33·구속기소)이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벌여 20대 남성을 살해한 지 3일 후였다.

/ 김현욱 기자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2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심도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법원이 재판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19-3부(배용준 황승태 김유경 부장판사)는 8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버랜드 놀이기구 가이드북 내용 중 “신체적·시각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용이 제한되거나 동반자 동승이 요구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시각적’을 삭제하는 등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이자 2018년 1심 선고가 이뤄진 지 3년 만이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재

당했다. 에버랜드 측은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며 막아섰다.

김씨 등은 “안전상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 등을 타며 위험도를 검증한 끝에 김씨 등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들에게 손해배상 금을 지급하고 에버랜드 가이드라인에서 시각과 관련한 문구를 빼거나 수정해달라는 우리 요청을 법원이 다 받아들였다”며 환영했다.

/ 차규성 기자

양현석 2심 징역 6개월 집행유예…면담강요 유죄



선고 공판 출석하는 양현석 전 대표

대표 비아이(BI·김한빈)의 미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8월 미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가 비아이의 미약 구매 혐의를 진술하자 수사를 무마하려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양 전 대표를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오자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 강성규 기자

“전후 통치는 누가” 안갯속 미래에 절망 깊어지는 가자지구

네타냐후 돌발 발언에 논란 점화…“팔 자치정부도 역량 부족” 여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주민들이 마차를 타고 남부로 피난을 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8년 만의 가자지구 재점령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중동의 화약고로 불려온 이 지역과 이 곳에 터를 잡았던 230만 주민의 앞날이 더욱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네타냐후 총리가 2005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군을 반대했던 사실과 이후 이곳에서 끊이지 않은 무력 충돌을 상기하며 재점령이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향후 시나리오를 둘러싼 혼란이 가자지구의 인적 재앙과 자신들 미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주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은 전후 가자지구를 누가 어떻게 통치할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

만 전후에 일시적으로 유엔과 미국 등이 가자지구를 맡고 현재 요르단강 서안을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미국 ABC 뉴스 인터뷰를 통해 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에서 “무기한 전반적 안보를 책임질 것”이라고 언급, 발언의 진의를 둘러싼 논란에 불을 댕겼다.

하루 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을 하마스 소탕을 위한 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은 이어지고 있다.

하마스는 2007년 PA를 장악한 정파 파

파를 내전 끝에 서안지구로 몰아내고 가

자지구를 통치해왔다.

그러나 정작 가자지구 주민과 전문가들은 PA가 통치하는 방안에 고개를 내젓는다. 부패하고 대중적 지지가 부족한데다 마무드 아巴斯 수반이 88세 고령인 점도 걸림돌로 제시된다.

분쟁 전문 싱크탱크인 국제위기그룹(ICG)의 타하니 무스타파는 “아바스는 가

자지구는 고사하고 서안지구도 통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잘라 말했다.

가자지구 남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서 지내는 아흐메드 알바시(26)는 “PA가 가자지구에 복귀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팔

레스타인인들이 이스라엘 랭크를 타고 돌

아오는 부패한 정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다”고 했다. 그는 “가자지구를 누가 다

스릴지는 다른 나라들 아닌 팔레스타인인

들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지도자 하난

아시라위는 “PA는 원칙적으로 팔레스타

인의 국가 지위를 보장하는, 보다 광범위한 평화조약의 일환으로서만 가자지구에 복귀할 것”이라며 어떤 팔레스타인 단체도 이스라엘 공격의 결과물로 가자지구를 관리하기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전시내각 안에서도 시나리오가 엇갈리는 가운데 2005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철수 결정과 당시 내각의 일원이었던 네타냐후의 판단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아리엘 샤론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철수 문제를 교착 상태에 빠진 중동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안보 전략으로 여겼다고 분석했다.

가자지구에서 철수하면 2000년부터 수년간 제2차 인티파다(팔레스타인 민중봉기)로 고조된 긴장을 완화하고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도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는 계산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처음엔 철수를 지지하던 네타냐후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실을 무시하고 가자지구를 이슬람 테러리즘의 기지로 만드는 움직임에 동조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뒤집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가디언은 “네타냐후의 비전이 무엇이건 그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보다 하마스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안보를 위한 공식이 아닌, 폭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했다.

/ 신현수 기자



코로나19로 숨진 동료 사진 들고 시위 벌이는 미국 간호사들

美병원들, 간호사 인력난에 초단기 임시직 간호사 의존 심화

미국 병원에서 간호사 알선 플랫폼 기반으로 교대 근무 시간을 선택하는 ‘긱 워크’(gig work·초단기 임시직 노동)로 전환하는 간호사가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에 따른 간호사 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병원 측,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와 근무 유연성이 끌린 간호사 측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진 것이지만, 이 때문에 환자 치료에 미칠 영향도 우려된다고 AFP 통신이 8일(현지시간) 진단했다.

간호사 제시카 마르티네스(38)는 미 뉴저지주 패리무스에 있는 ‘버건 뉴브리지 메디컬센터’ 병원에서 초단기 임시직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이 일주일에 7일,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해왔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하루꼴로 적게 일한다”며 정규직 간호사보다 지금의 임시직 간호사가 임금이 최소한 30%는 높다고 AFP에 말했다.

이런 흐름의 동력은 우선 병원들이 간

/ 황호석 기자

日 학자, 오염수로 “물고기 변형” 발언 후 지자체 강연 취소돼



도쿄전력 앞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이대 교수는 지난 9월 24일 한 지역 민방에 패널로 출연해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면서 “바다가 오염되거나 물고기의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그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했고 풍평(소문)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 댓글이 달렸다.

그런 가운데 도쿄 시나가와구는 다지마 씨를 강연자로 초대해 오는 11일 구민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남녀공동참여추진 포럼’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시나가와구측은 “방송 3일 뒤 회의를 열고 풍평 피해로 상처 받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 혼란을 피하기 위해 행사 개최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도쿄신문에 설명했다. 다만 구는 홈페이지에는 “여러 사정으로 중지하겠다”고 간단하게 안내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인사들은 이번 결정이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며 중지 철회회를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김영호 기자

독일 북대사관앞 10년째 北억류자석방 촉구시위…통일장관 서한

김영호, 시위자들에 “베를린 장벽처럼 북 장벽도 언젠가 허물어질 것”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석방하라”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고된 노동과 고문에도 생존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베를린 장벽 400m 앞에 살았다는 그는 “우리는 분단을 경험했고, 끔찍하고 잔인했던 나치 정권의 강제노동수용소의 고통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북한 주민들과 억류된 선교사들의 상황에 공감한다”면서 “평화 혁명에 의해 베를린 장벽이 붕괴했듯이 언젠가는 남북을 가르는 장벽도 무너질 것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 손현수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개울리자

손 하나 까딱만 해도
자동으로 끝!

자동으로 미처하여 수익으로 흘러주는
KB증권 예수금 자동 저금통

투자를 똑똑
까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상장필증 제2-02100호 (2023.06.12~2024.06.11) *투자는 이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식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투자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증부이며 예금보증회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치 변동 학습 비중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원본 또는 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주어집니다. *국내 주식기본수수료 HTS, 흥국미디 15만 원 이하~5만 원(0.1275%~0.2000%)과 원화 0.1973% 원(0.1973%) 원을 적용합니다. 기타 차익(손실)은 흥국미디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방법은 발행사 신용 등급(AA+, 2023.05.28 한국신용등급기의 신용 위험부도 또는 평균 AAA/A+~BBB 간 +0.1~순으로 투자자득실금 구분). *증권 기관은 입금 시 환전하고자 하는 국적(국적)을 기록하여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CMA입금액은 발행여액에 투자됩니다.)

*KB증권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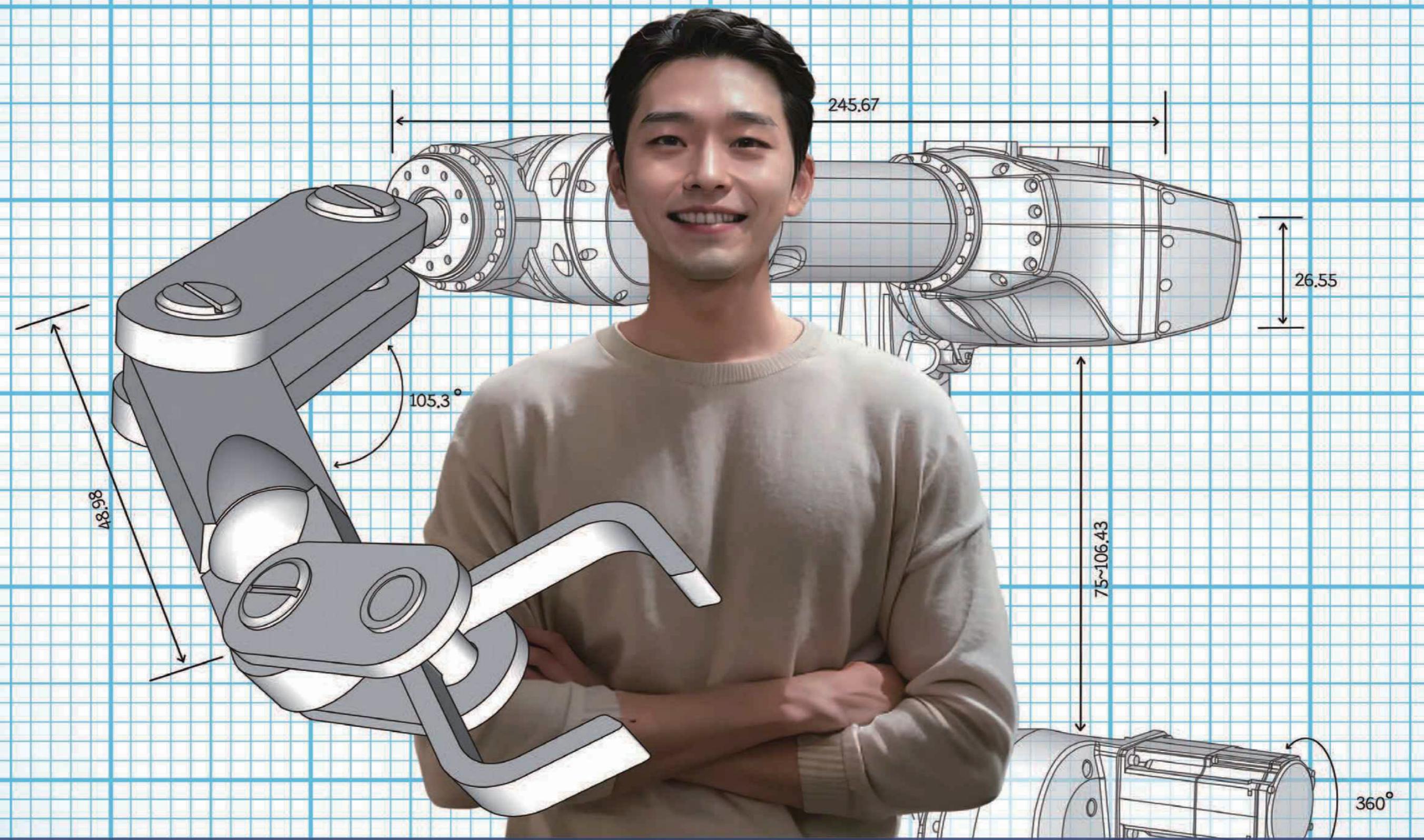
만난 적은 없지만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로봇개발자가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그 꿈을 응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IBK기업은행이 창업기업을 위한 더 큰 응원을 시작합니다.

혁신창업기업응원통장으로 당신의 힘을 더해주세요.



누구나 가입 가능한 **IBK혁신창업기업응원통장**

*위 통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예금수익은 혁신창업기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기본형
· 고시금리
연 3.15% ~ 연 3.30%
—
· 실세금리
정기예금
·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본형
· 고시금리
연 3.10% ~ 연 3.25%
—
· 중소기업
금융채권
(복리付)
· 우대금리
최고 연 0.10%

기여형
· 고시금리
무이자
—
· 실세금리
정기예금
· 우대금리
없음

*고시금리는 가입기간별 상이하며, 가입일에 따라 변동가능 [23. 07. 06, 현재, 세전] *우대금리 제공조건 : 기본형 가입 시 혁신창업기업 응원 메시지 등록 (자동인자)

창업벤처기업을 위한 **IBK비금융서비스**

IBK창업컨설팅
창업 초기 및 출현
경영 컨설팅 제공

IBK창공
사무공간제공, 멘토링,
판로개척·마케팅 지원

IBK BOX
금융·비금융 솔루션 제공
디지털 경영지원 플랫폼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303호(2023.07.06) 유효기간 [2024.07.05] * 이자는 만기일시지급식이며, 속도해지시 우대금리는 제공되지 않음(기여형의 경우 원금만 지급) * 계좌에 입금, 기업용 실손설정 등록을 통한 경우 원금 및 기여금 지급 제한 * 실세금리점기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금융채권은 단기금으로하여 예금보증금이나 개별 상품에 따른 구체화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향장을 받지 않습니다. 문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 ibket@ibk.com) * 금융상품 판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5층 높이서 철거…HD현대인프라코어, 130t급 굴착기 최초 출시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국내 최초로 130t급 철거용 굴착기(모델명 DX1000LC-7 데몰리션)를 출시하고, 최근 1호기를 납품했다고 8일 밝혔다.

DX1000LC-7 데몰리션은 기존 제품 대비 작업 범위가 10m 늘어나 건물 15층 높이인 46m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다.

제품은 굴착기의 팔 역할을 하는 봄(boom)과 암(arm) 등 프론트 옵션 5개를 갖췄다. 이들 옵션은 작업 공간의 높이와 용도에 따라 탈부착이 가능하다.

또 고층 철거 시 40도까지 운전석을 위로 기울일 수 있어 시야 확보 범위가 넓어졌고, 고중량 무게주(가운터 웨이트)를 추가 장착해 작업 안정성을 높였다.

아울러 모니터용 카메라, 안전 경보장치, 분진 감소용 워터스프레이, 크롤러(멜트형 차 바퀴) 폭 자동 확장 기능 등이 적용됐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2019년 64t급 철거용 굴착기 출시를 시작으로 철거용 특수장비 시장에 진출했다. 이후에도 46t급, 120t급 제품을 선보였지만 130t급을 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중소형 굴착기를 건물 옥상에 올려 위에서부터 철거하는 방식이 사용됐지만, 철거용 봄과 암이 적용된 굴착기가 국내에 등장하면서 철거 현장 안정성이 높아졌고 장비도 대형화하고 있다고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전했다.

/ 최현우 기자

대기업 전기요금 평균 10.6원↑…가정·업소·中企용은 동결

가스요금도 동결…“가스공사 미수금 등 보면서 인상여부 검토”

오는 9일부터 주로 대기업이 부담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0.6원 인상된다.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동결한다. 가스요금 역시 동결한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과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기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2021년 이후 누적 적자가 47조 원, 올해 상반기 기준 부채가 201조원에 달하는 등 재무 부담이 가중돼 왔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꾸준히 거론돼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kW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1~3월)와 2분기를 합해 요금 인상 폭은 kWh당 21.1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전은 이번에 산업용(약 44만호) 중에서도 대용량 고객인 산업용(을) 전기요금을 kWh당 평균 10.6원 인상

하기로 했다. 요금 인상률로 보면 6.9%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산업용(감) 요금은 동결한다.

이번 요금 조정으로 생기는 추가 판매 수입은 연말까지 4천억원, 내년 1년간 2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을) 전기를 이용하는 고객은 약 4만2천호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이용 고객의 0.2% 수준으로, 주로 대기업이 해당한다.

다만 이들의 전력 사용량은 26만7천

719기가와트시(GWh)로, 총 사용량(54만7

천933GWh)의 절반(48.9%)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한전은 산업용(을) 요금도 시설 규모

등 요금 부담 여력을 고려해 전압별로 세

부 인상 폭을 차등화했다.

산업용(을) 가운데 고압A(3천300~

6만6천V 이하)는 kWh당 6.7원, 고압B(154kV)와 고압C(345kV 이상)는 kWh

당 13.5원을 각각 인상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용(을) 고압A 사

용기업의 월평균 사용량은 228㎿h로,

현재 전기요금은 월평균 4천200만원 수

준이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같

은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전기요금은

약 4천400만원으로 부담이 200만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고압B 사용기업은 월평균 2억5천만원,

고압C 사용기업은 3억원가량의 추가 전기요금 부담이 각각 발생할 전망이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인상 대상이 된 기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기업들이 경영효율이나 에너지효율을 높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한전은 이날 전기요금의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하지만, 물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고려해 주택용 및 소상공인용 전기요금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 연료 가격과 환율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며 요금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추가 인상 여지를 남겼다.

산업부는 같은 이유로 가스요금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나 재무구조를 면밀히 보면서 앞으로 가스요금 인상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이정근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층 “아트센터 퇴거 안돼 이혼한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하나고 했다”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층은 ‘노 관장 층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반박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이노베이션이 퇴거를 요구하는 부동산은 아트센터 나비가 입주한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이다.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이곳에서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8~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 관장은 9일 예정된 2심 첫 변론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 만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 김효은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2030 BUSAN

BUSAN is Ready

글로벌 도시 부산의 힘찬 도전
2023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붕어빵 노점 줄고 가격 올라…편의점서 사서 먹고, 직접 만든다

GS25 붕어빵 즉석조리 식품 1위, 냉동 붕어빵·홈페이드 유행



이 인기를 얻는 것은 본격적인 겨울철이 찾아와도 붕어빵 노점을 찾기 힘들고,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붕어빵에 쓰이는 밀가루와 붉은 팥, 설탕, 소금, 식용유값이 모두 올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식용유의 경우 가격이 1년 전보다 0.1% 내렸지만 2년 전과 비교하면 55.1%나 올랐고, 밀가루는 2년 전보다 44.8% 상승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붉은 팥(수입)의 도매가격은 이달 7일 기준 40kg당 27만4천400원으로 평년 가격인 20만6천200원보다 33% 올랐다. 붕어빵 노점상들은 재료비가 오르자 “하루 종일 팔아봤자 인건비도 안 남는다”며 속속 업종을 바꿨고, 이에 붕어빵 노점이 귀해지면서 노점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앱까지 등장했다.

/ 정수경 기자

“3분기 세계 스마트폰 매출 애플 43%·삼성 18% 차지”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매출이 횡보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체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매출액은 1천억 달러(약 130조4천700억 원)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와 유사하며, 전 분기 대비 15% 오른 수치다. 제조사별로 보면 삼성전자와 애플이 전체 시장 매출의 5분의 3 이상을 차지했다.

애플은 대표 모델 ‘아이폰15 프로맥스’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3분기 매출 점유율이 역대 최고치인 43%를 기록

하며 선두 자리를 지켰다. 삼성전자의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감소했지만, 평균 판매 단가(ASP) 상승 등에 힘입어 점유율 18%로 2위에 올랐다. 특히 갤럭시 Z 플립5·폴드5가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갤럭시 S23 시리즈의 판매 동력이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제조업체인 오포(7%)와 샤오미(7%), 비보(4%)가 각각 3·4·5위를 기록했다.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3억 대 수준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 20%로 1위를 유지했다.

/ 권유희 기자

겨울철 대표적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 노점이 줄고, 가격이 한 개 1천원까지 오르자 냉동이나 즉석 붕어빵이 인기를 끌고 있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GS25는 10월 한 달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즉석 붕어빵’이 전체 83종의 즉석조리 식품 중에서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즉석 붕어빵은 편의점 내 즉석조리 판매량 2위인 군고구마보다 87.1%, 3위인 즉석고래사각어보다 157.8% 각각 더 팔렸다.

GS25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용궁식품이 만든 붕어빵을 냉동으로 들여와 매장의 군고구마 기계로 구워 팔고 있다. GS25는 즉석 붕어빵에 이어 미니 붕어빵과 즉석 스크림 붕어빵도 한 달 간격으로 출시했다.

이외에 냉동 붕어빵 상품으로는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붕어빵’ 신세계푸드의 ‘올반 붕어빵’, 오뚜기 ‘꼬리까지 가득 찬 붕어빵’, 사조대림 ‘국민 간식 옛날 붕어빵’, 설빙 ‘미니 붕어빵’ 등이 있다. 이 상품들은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에 익혀 바로 즐길 수 있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향해, 미래를 향해

변화무쌍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때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도,
또 속도를 조절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항해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미래의 미래에도
행복은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SK도 미래를 향해,
미래를 항해하겠습니다.



WAVE

더 나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한 행동
World EXPO 2030 BUSAN의 시작!
www.thewave.net



김건희 여사 “사회적 편견 없애기 위해 소록도 방문”



김건희 여사가 7일 오후 전남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 환자들을 위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7일 소록도를 방문해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해 여기를 찾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소록도는 더 이상 환자들만의 거주 공간이 아니며,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문화탐방의 가치를 지닌 곳”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

이 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여사는 “우리 국민이 소록도가 어떤 공간인지 더 잘 알아야 한다”며 “소록도는 정신적 치유의 메시지를 주는 곳으로서의 사명이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진 만나 “여러분이 진정한 천사”

김 여사는 또 “소록도의 생활과 풍경, 그리고 여러분의 애환이 담긴 작품을 통해 소록도와 한센병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김 여사는 국립소록도병원의 치료 병동에서 한센병뿐 아니라 고혈압, 기력저하 등 기저질환을 함께 앓고 있는 환자들의 손을 맞잡고 위로를 건네며 “식사 잘챙겨 드시고 즐겁게 생활하기 바란다”고 위로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한센인들은 “한센인 환자는 크게 줄었지만 차별은 여전하다. 소록도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고 싶다”며 “소록도 주민들의 바람은 새로운 소록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 여사는 소록도에 머물며 한센인들을 돌봤던 고(故) 마가렛 피사례 간호사와 마리안느 스토거 간호사의 생활 흔적을 간직한 ‘M 치료실’을 방문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선종한 마가렛 간호사를 기리며 헌화했다.

김 여사는 의료진과 만나 “사명감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천사”라며 “소록도병원은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한센인들의 정신적인 치유도 돋고 있다”고 감사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한센병·한센인에 대한 편견 극복과 소록도의 역사·문화적 의미 확산을 위해서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이희찬 기자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8일 대구 북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에서 열린 경북대 재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전주 이태원참사 분향소는 위로·연대의 공간…지켜달라”

유가족들 “정부에 맞서 시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

“이태원 참사 전주분향소는 참사를 과거의 시간으로 묻으려는 정부에 맞서 시민과 연대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저희의 마지막 의지입니다. 분향소를 지켜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전북지부와 전북대책위원회는 8일 이태원 참사 분향소가 설치된 전주시 전동 풍남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호소했다. 유가족협의회와 대책위는 참사가 발생하고 두 달여 뒤인 지난해 12월 29일 풍남문 광장에 천막 한 동의 분향소를 설

치했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곳이 경기전·전동 성당 등 관광명소가 즐비한 한옥마을 입구의 맞은편에 자리해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이 제기된다는데 이 유로 지난 5일 유가족들을 만나 철거를 요청했다.

행정대집행 등 강제 철거 절차를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분향소가 광장을 무단 점거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분향소 운영을 종료해달라는 의미다.

하지만 가족들은 전주분향소의 의미를

들어 유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희생자 종전복을 연고로 둔 10명의 유가족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곳에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인근 지역인 광주·전남이나 충청도 유가족들도 오가며 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에서 온 고 박준희씨 어머니 임나연 씨는 “전주분향소는 전국에 흩어져 있어 한 곳에서 만나기 어려운 유가족들이 한데 모여 서로 위로하고 보듬으며

하루하루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천”이라며 “유일한 이 공간을 없애려고 하지 말아달라”며 울먹였다.

대전에서 온 고 송채림씨 아버지 송진

영씨는 “지난 해 이 분향소가 처음 차려졌을 때 이곳에서 ‘여러분의 관심과 기억만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밝힐 수 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외쳤다”며 “1년간 전주시민의 도움으로 이 분향소를 지킬 수 있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사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이 공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김성호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8일 경북대에서 진행한 대학생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총선 공천에서 청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청년 할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이 동시에 나왔다.

김경진 혁신위원장은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 왜 청년 정치인이 적느냐는 비판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청년 할당제를 적극 도입해달라는 의견도 있었

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이 청년 정치인을 육성해 달라. 청년 유권자 숫자만큼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 현장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요청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에서는 청년 할당제가 오히려 공정의 키워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도 상당히 있었다고 김 위원은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북대 재학생인 2000년생 박우진 혁신위원이 ‘대학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자’고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

/ 곽도영 기자

김영환 “‘메가서울’ 부차적 문제, 수도권 인구 지방분산이 우선”

“수도권 인구 2천500만명중 600만명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 필요”

김영환 충북지사가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메가서울’ 구상 추진에 대해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현실인식”이라며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이 선결과제”라면서 당론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분권의 핵심은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어떻게 ‘리쇼어링’ 하느냐 하는 문제”라며 “이를 놔두고 김포·고양·구리·하남을 서울에 붙이느냐, 경기도에 두느냐 하는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2천500만명 중 우선 강원, 충남·북, 영호남에 200만명씩 총 600만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한 선결과제로 중부

내륙지원 등을 꼽았다. 그는 “백두대간과 수자원 보호의 규제를 완화해 중부지역(강원, 충남·북)의 리쇼어링을 먼저 진행하는 한편 지방의 농지와 산림, 농촌의 세컨하우스와 주말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어 귀농·귀촌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북도는 그동안 개발 정책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의 발전과 권리 회복, 각종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충북대 의대 등에 최대 221명 이상 증원을 요구하고 있다.

/ 조규현 기자

HYUNDAI MOBIS Innovation for Humanity, Mobility for Tomorrow



모빌리티가 육체라면 소프트웨어는 정신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나주시, 여성농업인 무료 특수건강검진 ‘호평’



여성 농업인 무료 특수건강검진

전남 나주시는 가사와 영농을 병행

하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무료 특수건

강검진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고 8

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이 프로그램은 51~70세 여

/ 박정균 기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Shinhan

player 모집

너답게 다 플레이 해

신한 p\ay

빠른 결제하는
성격 급한 플레이어

한 눈에 자산관리하는
관리가 필요한 플레이어

커뮤니티로 새 관심사 찾는
무한 도전 플레이어

콘텐츠 추천 받는
관심사 편식 플레이어

신분증, 멤버십, 증명서까지
가볍게 사는 플레이어



신한Pay를 기반으로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다양한 라이프 콘텐츠 등
마이데이터 시대를 함께 할 신한카드의 대표적인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418-Cpn-001호(2023.04.18~2024.04.17)

1Lead by 신한카드



iPhone 통화녹음이 필요할 땐
나만의 AI 개인비서, 에이닷

SKT의 AI는 누구에게나 있다

AI for Everyone

SK telecom



홍창기·박병호·알포드의 침묵, 한국시리즈 3차전서는 터질까

kt wiz의 안방인 경기도 수원케이티워즈파크로 옮겨 치르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7전 4승) 3차전의 관전 포인트는 홍창기(LG 트윈스), 박병호·앤서니 알포드(이상 kt) 두 팀 핵심 타자들의 방망이가 언제 터지느냐다.

서울 잠실구장에서 1승씩 나눠 가진 LG와 kt는 10일 오후 6시 30분 선발 투수로 임찬규(LG)와 웨스 벤자민(kt)을 내세워 세 번째로 격돌한다.

kt는 7일 LG 마무리 고우석을 9회에 무너뜨려 1차전에서 3-2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고, LG는 8일 2차전에서 0-4로 끌려가던 경기를 8회 박동원의 드라마틱한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5-4로 뒤집고 균형을 맞췄다.

LG와 kt는 나란히 1, 2차전에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도 추가점을 내지 못해 역전패했다. LG는 1차전 1회에 얻은 2점이, kt 역시 2차전 1회에 얻은 4점이 득점의 전부였다. 추가점을 내지 못한 원인이나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3 KBO 한국시리즈 2차전 kt wiz와 LG 트윈스의 경기. 3회말 2사 1, 3루 LG 오스틴 1타점 적시타 때 득점에 성공한 3루 주자 홍창기가 더그아웃에서 환영받고 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LG 1번 타자 홍창기와 kt 3, 4번 타자 알포드, 박병호의 침묵을 빼놓을 수 없다.

홍창기는 두 경기에서 8타수 무안타에 불넷 1개에 그쳤다. 알포드는 6타수 무안타에 불넷 2개, 박병호도 8타수 무안타, 삼진 3개로 잠잠했다.

LG 타선의 열쇠를 된 '출루왕' 홍창기는 때리는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가고 호수비에 걸릴 때마다 '이렇게 안 풀리느냐'는 답답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플레이오프부터 좀처럼 터지지 않는 알포드와 박병호의 표정도 굳어 있는 건 마찬가지다. 플레이오프 5경기에서 알포

드는 14타수 2안타, 박병호는 20타수 4안타에 물렀다.

영양가 만점의 안타나 적시타는 못 때렸어도 세 선수를 바라보는 양 팀 사령탑의 신뢰는 흔들리지 않는다.

엄경업 LG 감독은 홍창기를 두고 "고민하지 않는다. 홍창기가 자기 뜻을 할 것"이라며 "아직 경기 많이 남았다. 자기의 모습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홍창기가 중앙감을 이겨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강철 kt 감독은 2차전 패배 후 타순을 고민해보겠다고 했지만, 알포드와 박병호를 조정하긴 여의쳤다.

현재 5번 장성우, 6번 배정대, 7번 문상철의 타격 감각이 좋다고 이들을 전진 배치했다가는 타선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다. 시즌 내내 3, 4번을 친 알포드와 박병호를 부진의 높에서 빠져나오길 기다리는 길밖에 없다.

/ 최준용 기자



스파이크 시도하는 김연경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꺾고 3연승 김연경·옐레나 50점 합작

프로배구 여자부 1위 흥국생명이 3연승을 내달리며 선두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흥국생명은 8일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3-2024 V리그 여자부 방문경기에서 IBK기업은행을 세트 점수 3-1(23-25 27-25 25-20 25-23)로 놀렸다.

흥국생명은 6승 1패 승점 18로 2위 GS칼텍스(5승 1패 승점 13)를 멀찌감치 따돌렸다. IBK기업은행은 2연패로 6위 자리 를 벗어나지 못했다.

흥국생명은 1세트를 아쉽게 내줬다. 22-22에서 랠리 끝에 상대 팀 황민경에게 연속 득점을 내줬고, 23-24에서 상대 팀 외국인 선수 브리트니 아베크롬비(등록명 아베크롬비)의 공격을 막지 못했다.

김연경과 옐레나는 25점씩 올리며 공격을 주도했다. 김미연은 12점, 레이나가 10점으로 힘을 실었다.

IBK기업은행은 아베크롬비가 24점, 표승주가 21점을 올렸지만, 고비마다 주저앉으며 아쉽게 패했다.

경기도 의정부체육관에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 밀어넣기 공격을 성공한 뒤 옐레나가 쳐내기 공격으로 동점을 만들어 경기 분위기를 뒤집었다. 이후 상대 팀 수비 실책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흥국생명은 24-24에서 김미연의 터치아웃 공격으로 다시 앞서갔고 25-25에선

김연경이 연속 득점을 뽑아내며 2세트를 마무리했다. 천신만고 끝에 세트 스코어 1-1을 만든 흥국생명은 3세트를 손쉽게 가져왔다.

분위기를 탄 흥국생명은 3세트 시작 후 4연속 득점했고, 이후 점수 차를 유지하

/ 박규현 기자

박찬호 “지금은 유소년 야구에 전념 프로감독 할 때 아냐”

“선수들 ‘기’가 아니라 ‘귀’를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빅리거’ 박찬호(50)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특별고문은 ‘특유의 유머’로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SSG 랜더스 감독 부임설을 일축했다.

kt wiz와 LG 트윈스가 맞붙은 한국시리즈 2차전이 열린 8일 서울시 잠실구장에서 만난 박찬호 고문은 “최근 SSG 감독 제의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질문에 “팀을 이끄는 야구 감독은 많은 야구인의 로망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재단 활동을 하면서 유소년 야구 육성에 힘쓰고 있다. 프로야구 감독을 하려면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말했다.

현재 박찬호 특별고문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다.

미국프로야구 샌디에이고의 특별고문으로 메이저리그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박찬호 장학재단을 운영하며 유소



한국시리즈 2차전 찾은 허구연·박찬호

년 야구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대회가 열리면 마이크를 잡고 해설자로 팬들과 만난다. 이날도 박찬호 특별고문은 오전 공주에서 열린 제20회 박찬호기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을 보며 유소년 선수들을 응원한 뒤 서울로 이동해 한국시리즈 2차전을 관전했다.

허구연 KBO 총재와 ‘한국 야구 발전’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했다. 박찬호 특별고문은 “나도 말을 아끼지 않는 편인데, 허구연 총재님은 한 수 위더라”라고 웃었다.

/ 이찬혁 기자

최혜미, ‘동호인 출신’으로는 첫 여자프로당구 투어 정상



활동하다가 2019년 동호인을 대상으로 열린 LPBA 오픈 챔피언십 통해 프로당구 선수로 데뷔했다.

최혜미는 이번 우승으로 프로당구 최초로 ‘동호인 출신’ 우승이라는 진기록을 남겼다.

경기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최혜미는 “일자리를 구하다가 우연히 친구가 주천해서 당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손님들이 치는 걸 보면서 구경하는데 정말 재밌어 보이더라”면서 “일을 하며 조금씩 당구를 배워 조금씩 점수를 올렸다”고 말했다.

/ 황희진 기자

일상과 일상 사이를 엘다.

SANTA FE

스튜디오드래곤 3분기 영업이익 219억원…“OTT 판매 호조”



영상 콘텐츠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영업이익을 냈다.

코스닥 상장사 스튜디오드래곤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1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5.4% 증가한 것으로 잡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74억원을 25.6% 상회했다.

매출은 2천174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5% 감소

했다. 순이익은 182억원으로 1.9% 늘었다.

스튜디오드래곤은 “TV 방영 회차가 줄어 전체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대작 중심으로 OTT 공급과 판매 효율을 극대화해 영업이익은 늘었다”고 설명했다.

또 “OTT 오리지널 공급과 TV 동시 방영작 판매 호조에 힘입어 국내외 판매 매출이 작년 동기보다 8.6% 늘어난 1천800억 원을 기록했다”며 “이는 분기 단위 역대 최고치”라고 덧붙였다.

/ 안종호 기자

뉴진스, ‘빌보드 뮤직 어워즈’서 공연…“K팝 걸그룹 최초”

그룹 뉴진스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BBMA)에서 공연한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8일(현지시간) 공식 SNS를 통해 뉴진스가 올해 시상식의 공연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빌보드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와 함께 미국 대중음악 3대 시상식 중 하나로 꼽힌다. K팝 그룹 가운데 이 시상식에서 공연한 팀은 방탄소년단(BTS)이 유일하다.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는 K팝 걸그룹 가운데 최초이자, K팝 그룹 중 데뷔 후 최단기간에 공연자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뉴진스는 이번 공연에서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진입했던 ‘슈퍼 샤이’(Super Shy)와 ‘OMG’를 선보일 예정이다.

뉴진스는 올해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빌보드 글로벌(미국 제외) 아티스트, 톱 글로벌 K팝 아티스트, 톱 글로벌 K팝 송, 톱 K팝 앨범 등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올해 시상식 공연 및 수상자 발표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오는 19일 빌보드 공식 SNS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 박소희 기자



넷플릭스 범죄 스릴러 ‘악연’에 신민아·박해수·이희준 등 출연



박해수는 우연히 의문의 사고를 목격한 후, 돌이킬 수 없는 거래를 하게 되는 인물로 변신한다. 엇갈린 욕망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전개를 마주하게 된다.

신민아는 어린 시절 겪었던 사건으로 인해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의사 역을 맡았다.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물을 만나게 되면서 극과 극의 감정선을 오가게 된다.

인생 한 방을 노리며 사채까지 끌어들여 코인에 투자했으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빚더미에 앓게 된 인물은 이희준이, 부당하게 일자리를 잊고 거액이 걸린 일을 이뢰받게 되는 또 다른 인물은 김성균이 연기한다.

이광수와 공승연은 강남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진 성공한 한의사와 그의 여자친구로 호흡을 맞춘다.

영화 ‘검사외전’, ‘리멤버’를 만든 이일형 감독이 극본과 연출을 맡았다.

구체적인 공개일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 윤유선 기자



BTS 정국, 뉴욕 한복판서 랩라이브로 열창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정국이 8일(한국시간) 미국 NBC 아침 프로그램 ‘투데이 쇼’(TODAY)에 출연해 히트곡 ‘세븐’(Seven) 등 세 곡을 열창했다.

9일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정국은 ‘투데이 쇼’의 ‘시티콘서트 시리즈’(CitiConcert Series)의 하나로 뉴욕 중심가 투데이 플라자에서 단독 야외 공연을 펼쳤다.

그는 랩라이브에 맞춰 새 앨범 타이틀곡 ‘스탠딩 넥스트 투 유’(Standing Next to You)를 비롯해 ‘3D’와 ‘세븐’을 들려줬다.

/ 남희정 기자

공명·김민하, 판타지 로맨스 ‘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캐스팅



비밀을 마주하고, 삶의 의미와 사랑을 찾았습니다.

공명은 세상을 떠난 지 6년 만에 희완 앞에 나타난 저승사자 김람우 역을 맡았다. 첫사랑의 감정을 숨긴 채 희완과 동행하며 기상천외한 버킷리스트를 수행한다.

애플 TV+ ‘파친코’로 강한 인상을 남긴 김민하는 웃음을 잃은 채 정준을 낭비하다 죽음을 마주한 정희완을 연기한다. 천진난만한 장난꾸러기 여고생과 무기력한 스물넷의 정준을 오가는 폭넓은 감정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CJ ENM 영화사업부가 처음 기획·제작하는 OTT 시리즈다. 영화 ‘연애의 온도’,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글리치’ 등을 연출한 노덕 감독이 크리에이터를, 영화 ‘애비규환’으로 주목받은 최하나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 차주연 기자

‘사내맞선’ 홍콩 드라마로 재탄생…현지 아이돌 캐스팅



지난해 김세정 주연의 드라마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끈 ‘사내맞선’이 이번에는 홍콩 드라마로 만들어져 현지 시청자를 만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8일 자사 웹소설·웹툰 저작재산(IP) ‘사내맞선’이 홍콩 뷔(Viu)TV 드라마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여자주인공 신하리 역에는 패션모델 한나 첸, 남자 주인공 강태무와 그의 비서 차성훈 역에는 홍콩 인기 아이돌 미러의 앤슨 로(盧瀚霆), 에단 루이(呂爵安)가 캐스팅됐다. 이 드라마는 이달 27일 홍콩 IT기업 PCCW 산하 TV 채널 뷔TV에서 방영될 예정이다.

홍콩 제작사가 만든 만큼 ‘사내맞선’ 원작 웹소설·웹툰의 줄거리를 따라가되 신하리 부모님이 운영하는 치킨집은 홍콩 스타일 식당으로 바꾸는 등 현지 문화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작자인 해화 작가는 “사내 맞선”이 홍콩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제작돼 방영된다니 너무 설렌다”며 “홍콩의 강태무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 좋겠고, 홍콩의 하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무를 속일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 홍지민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익지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가50142

구독 광고 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THE HYUNDAI

LA BOUTIQUE
D'HARRY

2023 겨울, 크리스마스 선물이 가득한 장인들의 공방 거리
‘해리의 꿈의 상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1월 1일부터, 현대백화점에서



크리스마스
스토리 보기

현대백화점그룹 통합멤버십 H.point

현대백화점 | 현대아울렛 | 현대백화점면세점 | 디현대닷컴 | 현대홈쇼핑 | 현대몰 | 현대그린푸드 | 한성
더한섬닷컴 | 현대리바트 | 현대L&C | 자누스 | 현대편의점 | 현대드림투어 | 현대아린아책미술관

금융의 모든 순간

헤아림

“자동차만 풀체인지?”

이제 운전자보험도 풀체인지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강화되는 교통법규에 맞춰
특약과 보장을 확 넓혀 운전자를
더 든든하게 지킵니다



보장은 더 크게, 특약은 더 넓게 NH다이렉트운전자보험



[운전자 중과실 형사적 책임 보상]

해당 특약 가입 시 / 음주, 무면허, 도주사고,
약물상태에서 운전은 제외

- ①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포함]
- ② 교통사고처리지원금/V
- ③ 자동차사고불급대인, 대출



[비운전자까지 보장]

해당 특약 가입 시

- ①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비운전자]
- ② 대중교통이용증교통상해사망



[납입면제]

단, 보험금 지급으로
소멸된 담보 제외
교통상해후유장애(50%이상) 발생 시



[보험료 할인]

NH농협금융
ESG 캠페인 서약 시 2%
ESG 실천서약: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ESG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

* 상품가입 전 직원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보험계약자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외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범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단호시가 정하는 기준에 의거,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및 건강상태, 직업 또는 직무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를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체결되어 있는 경우(공제계약 포함)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스쿨존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은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거나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는 등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할 시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한도 및 면책사항, 감액지급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102419호[2023.07.20~2024.07.19]

www.nhfire.co.kr
1644-900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손해보험이 응원합니다

NH농협손해보험